

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
신국제공항 최적입지는

밀양!

국가경쟁력 강화와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
동남권 신국제공항에 관한 이해



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추진단



동남권 신국제공항 왜 필요한가요?

1_국제관문공항 부재에 따른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 가중

- 1,320만 인구의 영남권은 장거리 국제선 여객과 항공 수출입화물 대부분(99%)이 인천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가중됩니다.
- 영남권에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서는 편도 6시간 이상 걸리는 등 공항접근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
- 2025년까지 영남권 항공여객 및 물류의 추가 접근비용은 연평균 6,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.¹⁾
- 국제관문공항 부재는 외국 기업이나 관광객이 영남권에 대한 투자 및 여행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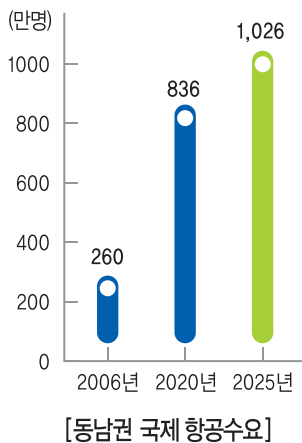
국제화 시대에는 국제관문공항의 존재 여부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성장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.



2_기존공항의 한계 극복과 국제항공수요 급증에 대비

- 영남권 국제항공수요는 2006년을 기준으로 2020년 3배, 2025년 4배 등 급격히 증가하고, 기존 국제공항의 처리능력이 10년 내 한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²⁾
- 영남권 기존공항은 군·민 공동사용으로 인해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약요인이 많고, 주변지역이 도시화되어 고질적 소음피해와 지형장애물 등 항공안전 위협요소로 인해 시설확장이 어렵습니다.
- 세계 항공시장의 수요증가와 아시아 주요국가의 공항개발 정책을 고려할 때, 항공운송 부문의 경쟁력 선점을 위해서는 인천공항과 기능분담이 가능한 국가 제2관문공항 건설이 필요합니다.
- 신공항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,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한 입지결정과 조기건설이 시급합니다.

일본, 중국은 동북아 허브공항 선점을 위해 공항 건설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(일본: 나리타, 간사이, 주부 / 중국: 서우드, 푸둥, 바이윈, 첩랍콕)



3_영남권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공기반 제공

- 영남권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개 국가산업단지, 83개 일반산업단지, 4개 외국인투자 전용산업단지가 신성장 동력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
-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대구·경북, 부산·진해,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대구·울산·구미·포항·창원·녹산 국가산업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은 한국의 미래성장을 책임질 성장 동력입니다.

국회 연구용역 결과³⁾, 광역경제권 개발 인프라 구축방안으로서 '초광역권 글로벌 접근성 강화'를 위해 동남권 신공항 사업 조기 실행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
4_신공항은 인천공항을 보완하는 제2 관문공항

- 인천공항의 위기상황 또는 재난발생 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고, A380기종의 이착륙도 가능한 교체공항(Alternative Airport) 건설이 시급합니다.
- 김포공항은 인천공항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기상조건이 유사하여 대체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, 내륙과 직접적인 연계수단이 있는 동남권 신공항이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이 되어야 합니다.

1)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방안(2007,12월, 부산·울산·경남 공동연구)

2) 제2관문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 용역(2007,12월, 국토연구원/국토해양부)

3)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(2009,12월, (사)현대사기록연구원/국토해양위원회)

신공항은 어디에 건설되어야 하나요?



1_영남권 전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

- 항공수요 확보를 위해 부산·대구·울산·포항·구미·창원 등 대도시에서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주요 도시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여 각 도시를 기능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2_항공기의 운항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곳

-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연 또는 이동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돌풍, 안개, 태풍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.

3_민간전용공항으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곳

- 군사적 제약요인이 없이 운영 가능한 민간전용공항이라야 합니다.
- 소음피해가 적고 24시간 운영을 위해 도심에서 벗어나야 하고, 주변 지역의 개발밀도가 낮아 소음피해 요인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4_경쟁력 있고 경제적 건설이 가능한 곳

- 공항이용을 위한 도로·철도 등 교통인프라 건설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 없고, 건설비용이 적게 들어 국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.
- 충분한 항공수요 창출이 가능해야 하며, 정치논리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지방공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

5_충분한 배후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

- 21세기의 공항은 교통시설의 역할뿐만 아니라 산업, 문화, 관광, 환경자원과 어우러지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.
- 공항과 함께 공항도시, 배후산업단지 등 공항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배후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.

[산업단지 분포도]

- 국가산업단지(14)
- 일반산업단지(83)
- 외국기업전용산업단지(4)



[광역교통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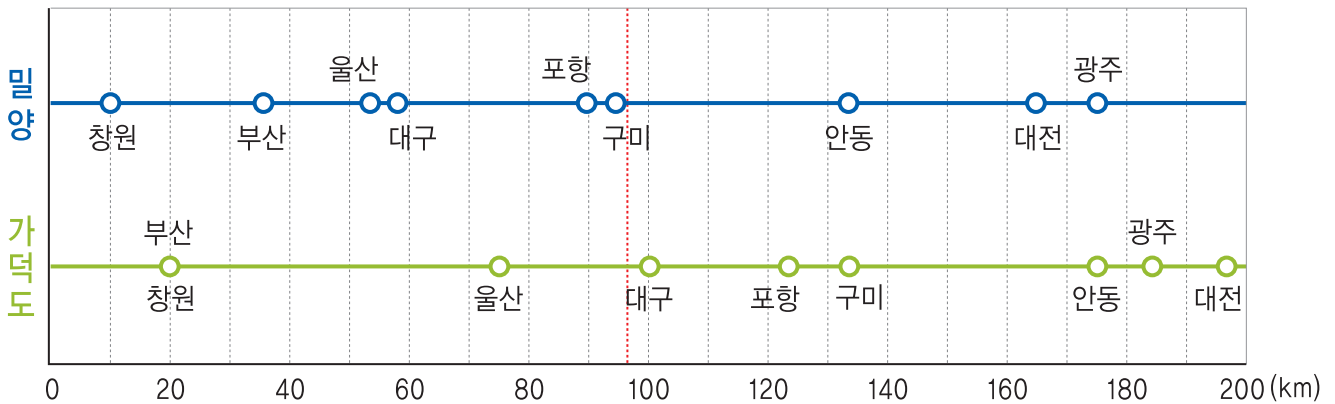


밀양 신공항! 왜 좋은가요?

1_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접근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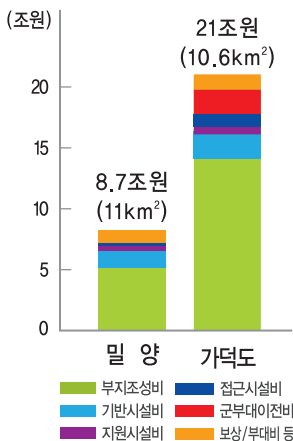
-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영남권 주요지역에서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어 공항이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- 밀양은 대구-부산, 중부내륙, 남해, 울산-함양(설계 중) 등 4개 고속도로와 경부선(KTX), 경전선, 신항만 배후철도가 통과하는 곳으로 공항 이용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습니다.

[후보지별 접근거리]



2_충분한 항공수요 확보

- 공항 반경 90km 이내에 부산·대구·울산·포항·구미·창원 등 주요 대도시와 산업단지가 모두 위치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감안하면, 호남과 충청권에서는 인천공항보다 밀양 신공항이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1,8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 권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- 영남권은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우수한 문화유산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(안동, 경주, 합천 등)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.



[건설비 비교]

3_해상공항보다 경제적인 건설비

- 밀양은 가덕도 해상공항에 비하여 건설비가 훨씬 적고(40%수준)⁴⁾, 연계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교통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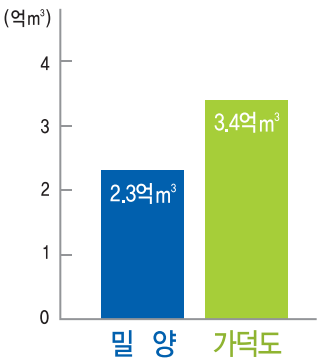
4_광활한 공항 배후부지 확보

- 밀양 주변에는 33km² 이상의 배후부지가 있어 주변 지역을 공항 신도시, 상업·레저시설 및 배후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용이합니다.

4) 동남권 신국제공항 항공수요재산정 및 개발계획 수정(2009.11월, 경상남도)

밀양 신공항에 대한 오해

1_밀양 주변은 산이 많아 안전하지 않다는데?



[토사 소요량]

-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일부 산지는 ICAO(국제민간항공기구)가 정한 기준까지 절토가 용이하여 운항안전성은 영구히 확보됩니다.
- 장애물 절토량(2억 3천만m³)은 공항부지 성토용으로 활용하고, 절취된 산지는 산업단지나 위락단지로 개발하여 매각할 수 있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가덕도의 경우 해상매립 성토를 위해 밀양보다 훨씬 많은 약 3억 4천만m³의 토량이 소요되나, 주변 여건상 토량을 확보할 장소가 없고, 운반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.

2_항공기 소음피해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데?

- 기존의 내륙공항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, 군사공항과 함께 운용되고 있어 군용기와 민항기에 의한 복합적 소음발생이 문제가 되며, 특히 군용항공기의 소음피해가 많아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
- 밀양 신공항의 경우 순수 민간전용공항으로 군용기의 극심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도심과는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다.
- 공항부지 주변에 산재한 소규모 마을은 공항부지나 물류단지 등 주변지역 개발에 직접 편입되어 공항개발 시 조성되는 공항도시로 이주하게 되면, 개항 후 소음으로 인한 피해발생은 해소됩니다.



가덕도 해상공항! 무엇이 문제인가요?

1_새로운 항공 패러다임을 무시한 군사공항

-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확보해야 할 비행공간(공역)이 김해공항과 겹쳐 김해공항의 '공군기지(K1)'가 이전해야만 신공항 건설이 가능합니다.
- K1기지를 가덕도로 이전 시 공항운영 전반이 군 위주로 운영되고, 군사적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결국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
2_막다른 외길, 이용하기 불편한 공항

- 가덕도는 동남단 해상에 치우쳐 있는 섬으로 대구·울산·경북에서는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.(80~120분 이상 소요)
- 가덕대교가 유일한 접근도로이며, 도심과 공단지역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부산에서조차 이용이 불편합니다.
- 고속도로·철도교통망 추가 건설이 필수적으로,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이 추가 소요됩니다.

3_공항 건설비와 운영비가 많이 드는 비경제적 공항

- 해상매립(평균수심 20m), 연약지반처리, 어업보상비, 공군기지 이전 및 시설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추가 소요됩니다.
- 초기 투입비용의 과다로 개항 시 공항시설 이용료가 비싸지게 되고, 공항이용이 불편하여 항공수요 감소로 인한 적자운영이 예상됩니다.

4_항공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공항

- 철새 서식처인 낙동강 하구가 인접하여 조류충돌⁵⁾ 위험이 높고, 이동 장애물인 대형선박이 항공기 착륙지점을 수시로 통과(일평균 10척 이상)하게 되어 항공기 안전운항에 치명적입니다.
- 외해에 건설하여 태풍·해일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, 해상매립에 따른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
[제한법률]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

문화재보호법

습지보전법

개항질서법

해양환경관리법

자연환경보전법

항만법

세계에서 외해에 입지한 관문공항 건설사례는 없으며, 일본 간사이공항(해상공항)은 개항 6년만에 무려 11m가 침하되었습니다. (2000.7.13.아사히신문)

5_법적·환경적 제한도 무시되는 '묻지 마' 개발

- 가덕도 육상과 해상은 7개 법률에 의한 환경규제와 군사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공항개발 시 법적제한 사항을 모두 해제해야만 가능합니다.

5) 92종 41,905개체 서식(멸종위기 1급 21, 2급 4,797),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(2007, 환경부)

신공항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이 가능한가요?

1_김해공항 확장문제 논란의 배경과 검토내용

-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김해공항의 안전성 취약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확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진된 것입니다.
- 부산시는 지난 2009년 5월 가덕도의 입지적 문제점이 부각되어 상황이 불리해지자 대안으로 '김해공항 확장검토'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입니다.
- 부산시의 계획은 현재의 남북방향 활주로를 03방향(1시 방향)으로 교차하여 추가 건설하는 것입니다.
- 이 방안은 지난 2002년 4월 15일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안전성 검토⁶⁾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.

2_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문제점

- 교차활주로 건설을 위해서는 '김해공항 공군기지(K1)'와 '대한항공 우주사업 본부'를 이전해야 하나, 국가안보 중추기능인 K1 기지의 이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.
- 김해공항의 K1 기지에는 전력증강을 위해 2012년까지 조기경보기(Peace Eye) 4대가 배치될 예정이며, 현재 격납고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.
- 확장건설기간 중 장기간 공항 폐쇄로 인한 이용불편이 가중되고, 군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여 안보 공백이 발생합니다.
- 군의 관제권 독점과 민항기 SLOT(이착륙횟수)제한 및 야간운항통제 등의 군·민 공용공항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, 소음피해 권역이 1,153가구에서 7,700가구로 7배 이상 확대됩니다.⁷⁾
- 부지 추가매입(302만m²) 등 총공사비가 무려 7,5조원이나 소요되는 반면, 활주로 용량은 약 15%증가에 그쳐 경제적 타당성이 없습니다.

6) 김해공항 안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(2002.12월, 교통개발연구원/건설교통부)

7) 신공항 후보지 평가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(2009.12월, 부산발전연구원)



후보지 입지비교



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
신국제공항 최적입지는

밀양!

경제성은 물론 안전성,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
밀양은 가덕도에 비해 **절대 우위**입니다!